

전주시, 통합형 안내표지판 설치

전주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도로 위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전북도국악원 사거리 등 8곳에 통합형 도로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그동안 따로 설치 운영해온 신호등과 가로등, 도로안내표지판 등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도로비우기 사업'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로에 설치된 지주시설물들은 협소한 인도 및 도로변 등에 제각각 위치한 관례로,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명 또는 시설물명 위주

전북도국악원 사거리 등 8곳에 통합설치 추진

의 기존 도로표지판 대신 도로명 주소가 쓰여진 안내표지판으로 바꾸는 '도로명 안내표지판 선도사업'과 연계해 새로 설치되는 표지판 중 지주 시설물 통합이 가능한 지역에 통합형 도로명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통합형 도로명 안내표지판은 총 8개소로, 시는 관한 경찰서 및 교통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전라북도 국악원 사거리 3개소와 송천주공아파트 2차 사거리 3개소, 평화동 BYC 삼거리, 우이주공아파트 2단지 사거리에 각각 통합형 도로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앞으로도 통합형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검토해 점차적으로 도로 위의 불필요한 시설물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사설안내표지판은 정비하고, 도로 안내판과 안내표지판의 경우 집적화를 통해 제거할 것을 제거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등 도로 및 교통시설물에 대한 통합 정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도심 내 가로환경을 저해시키고 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들을 비워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미관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시는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문제 해소를 위해 생활폐기물 상습적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도심환경을 저해시키는 생활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청소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각종 홍보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도 지속 전개하고 있다.

관계자는 "그 동안 거리에 어지럽게 설치돼 있던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이 하나의 지주로 통합해 가로경관 개선과 도시 이미지 향상은 물론, 보행자의 교통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군산 내항 바지선 침몰

군산 내항에 정박 중이던 바지선이 침몰해 통항 선박의 주의를 요구된다. 지난 23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19일 오후 10시30분경 군산시 해망동 군장대교 앞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314톤급 바지선 1척이 침몰함에 따라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침몰한 바지선은 지난해 12월부터 군산 내항에 정박한 뒤 노후 부식으로 인해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묶여 있다가 정박용 줄(계류색)이 끊어지면서 인근을 표류하다 결국 침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문정곤 기자



제1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전주시 사회복지대회'가 지난 23일 전주 바울센터 체육관에서 김승수 시장과 김영지 시의회 의장, 최원규 전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군산 식품회사서 돼지고기 빼둘러 판매한 직원들 검거

자신들이 근무하는 식품회사에서 돼지고기를 몰래 빼둘러 정육점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3일 식품회사에서 돼지고기를 빼둘러 정육점에 판매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이 회사 본부장 이모(37)씨를 구속했다.

또 이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영업부장 윤모(42)씨와 정육점 사장 양모(35)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0·여)씨 등 14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9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한 식품회사에서 생산한 돼지고기 17억원 상당을 훔쳐 정육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육점 사장 양씨 등은 이들이 식품회사에서 몰래 빼둘러 돼지고기를 4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재 기자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관계자 '한자리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주시, 성과보고대회 참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등 전국의 금융복지상담센터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금융복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복지센터 성과보고대회'에 참가해 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는 안정적인 가정경제 운영을 돕고, 일반 시민에게는 전

문상담을 통해 건강한 가계운영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의 추진경과와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전주시와 서울시, 경기도, 전남도, 성남시,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등 금융복지상담센터(상담소)를 운영하는 전국 7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각 지역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채무자의 인권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 잘못된 금융정책과 악랄적 채권추심의 현실을 고발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에 따른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시는 가계부채의 증가 및 악성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금융과 복지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를 개소하고, 금융 상담과 채무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접수

전주시는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이 발생한 토지 1728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제출을 접수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일사판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jeonbuk.go.kr/land_info)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해 토

소소재지 구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현장 설명을 통해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현장설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의 현장설명을 듣고 싶은 시민은 의견서를 이용해 현장설명제를 요청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회신할 계획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1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전주시 사회복지대회'가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영지 전주시의회 의장, 최원규 전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종사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전주 바울센터 체육관에서 열렸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시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주시와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정성)가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긍지와 사기를 높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주시역 곳곳에서 사회복지 증진과 소외이웃에 헌신 봉

사를 해온 사회복지 유공자 15명에게 전주시시장상과 전주시의장상, 전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제9회 사회복지인 체육대회'도 함께 열려 사회복지인 및 가족들이 즐겁게 참여했다. 또한 체육대회 등을 통해 화합과 소통을 나누는 한마당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념사에서 "사회복지의 날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척도이자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출발선이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다니며 단 한 사람의 전주시민도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로 똘똘 뭉쳐 역할을 모아야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도내 7개 시군 통합관 운영

전주시와 전주시평생학습관은 22일부터 25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진행된 '제5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원이 주관한 이번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배움으로 즐기는, 100세 시대의 행복'의 주제로 33개 통합관이 운영되고, 평생학습 관련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전시, 토론회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평생학습박람회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진안군,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완주군 등 도내 7개 시·군과 공동으로 전라북도 평생학습도시 연합으로 참가해 전북 통합관을 운영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평생학습도시 8개 시·군은 '전북으로 떠나는 학습여행'을 주제로 홍보책자와 공동체험관을 제작했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포토존 운영을 통해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며 평생학습에 대해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말과 휴일인 24일과 25일에는 전주시민의 특별한 전통제분과 핸드메이드 켈트 체험행사도 진행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역별 통합관이 운영되는 만큼 내년에도 더욱 알차게 준비하여 배움으로 하나 되는 전북의 평생학습도시와 그 안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주시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빛내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채무지원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채무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